제1157호 2013.6.15~6.21

통 일 부



주 간 북 한 동 향

Weekly Report on North Korea

개 황 | 대남동향 | 내부동향 | 대외동향
주요인물 동정 | 주간보도일지 | 금주의 약사

Weekly Report on North Korea



Contents

제1157호 2013.6.15~6.21

Ⅰ 개 황 1

Ⅱ 대남동향

북한, 6.25는 북침 전쟁이라고 주장 2
북한, 남북당국회담 파탄 관련 비난 3

Ⅲ 내부동향

김정은, 대관유리공장 현지지도 등 4

Ⅳ 대외동향

北 국방위 대변인, 美北대화 제의 등 관련 중대담화 발표 7
김계관, 북중 외교부문 전략대화 관련 방중 8

주요인물 동정 9

주간보도일지 15

금주의 약사 23

개 황

대남동향

북한, 6.25는 북침 전쟁이라고 주장

o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6.25는 미국에 의해 계획된 북침전쟁이라고 주장하였음.(6.20 중통)

북한, 남북당국회담 파탄 관련 비난

o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남북당국회담 파탄 책임이 남측에 있다고 주장하였음.(6.22 중통)

내부동향

김정은, 대관유리공장 현지지도 등

o 북한은 김정은의 △대관유리공장 △유평혁명사적지 △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 △1월18일기계종합공장 △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현지지도 등을 보도하였음.(6.15~20 중통 등)

대외동향

北 국방위 대변인, 美北대화 제의 등 관련 중대담화 발표

o 北「국방委」대변인은 중대담화를 발표해, '북-미 당국간 고위급회담'을 통해 '現 한반도 긴장국면 해소문제 등을 협의'하자고 제안하였음.(6.16 중통)

김계관, 북중 외교부문 전략대화 관련 방중

o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방중 및 외교부문 전략대화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음.(6.18~22 중통 등)



북한, 6.25는 북침 전쟁이라고 주장

개 요

o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6.25는 미국에 의해 계획된 북침전쟁이라고 주장하였음.(6.20 중통)

주요내용

o 남조선괴뢰패당이 1950년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침략전쟁도발과 관련한 력사적 사실을 오도하기 위해 미쳐 날뛰고 있음.

- 박OO는 17일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라는데서 청소년들의 력사인식과 관련한 조사결과 "한탄스럽게도 학생들의 약 70%가 6.25를 북침이라고 하였다."고 하면서 "결코 묵과할수 없는 문제이기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것"이라고 내뱉었음.

o 지난 세기 50년대 조선전쟁이 철두철미 외세에 의한 북침전쟁이였다는 것은 력사적사실들이 확인하고 있음.

- 미국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군비확장이 시작되고 경제공황의 공포가 극도에 이른 시기에 미국의 정치군사당국자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조선전쟁을 결심하였음.

o 력사는 그 누가 원한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님. 죄악의 대가는 언제든 치르게 되여있음.

북한, 남북당국회담 파탄 관련 비난

개 요

o **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남북당국회담 파탄 책임이 남측에 있다고 주장하였음.(6.22 중통)**

주요내용

o 며칠 전 남조선 괴뢰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“많은 의제를 론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급이 아닌 북의 통일전선부장과의 회담을 요구했다.”고 하면서 그것을 “북이 거부해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내세웠다.”고 구구히 변명하였음.

o 우리는 지금까지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, 평화와 통일의 길을 다시 열기 위해 할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왔음.

- 괴뢰패당이 한사코 북남당국회담을 파탄시킨 목적은 대화와 긴장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우리의 영상을 흐려놓고 국제적인 반공화국 제재와 압박분위기를 유지하며 대결정책을 어떻게 하나 실현하기 위한데 있음.

- 남조선집권자들이 아무리 말장난질로 북남당국회담파탄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모지름을 써도 내외여론을 결코 속일 수 없음.

김정은, 대관유리공장 현지지도 등

개 요

o 북한은 김정은의 △대관유리공장 △유평혁명사적지 △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 △1월18일기계종합공장 △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현지지도 등을 보도하였음.(6.15~20 중통 등)

주요내용

☐ 김정은, 대관유리공장 현지지도(6.15 중통)

o 동행 : 최룡해·최휘·박태성·홍영칠·리만건

o 주요 내용

- 김정은은 먼저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광학측정기재의 성능을 요해함.

- 광학측정기재들의 성능이 지난해보다 훨씬 좋아졌고 안전성도 보장되었다면서 정밀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고 언급함.

- 독자적 기술개발사업에 힘을 집중하며 생산공정의 현대화·자동화를 실현하고 설비·재료의 국산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언급함.

- 현대적인 유리제품 및 광학기재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가고 있다면서 공장관리 운영과 생산에서 지침으로 되는 과업들을 제시함.

☐ 김정은, 유평혁명사적지 현지지도(6.16 중통)

o 동행 : 최룡해·최휘·박태성·홍영칠

o 주요 내용

- 김정은은 유평혁명사적지와 같은 사적지·사적물들은 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유산이라고 언급함.

- 소개편집물을 만들어 방영하며 미술작품도 창작하여야 한다고 언급함.

□ **김정은, 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 현지지도(6.17 중통)**

o 동행 : 최룡해·최휘·박태성·홍영칠·손철주·윤동현

o 주요 내용

- 김정은은 가공 및 조립직장을 돌아보면서 생산 및 현대화 정형을 요해함.

- 공장구내 길을 걸으면서 환경정리가 잘되었다고 하며 이곳을 처음으로 찾았던 10여년 전에 비하여 공장의 면모가 일신되였다고 언급함.

-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사용자들에게 호평을 받는 현대적인 기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언급함.

- 기계제품의 현대화 수준을 높이자면 자료보급기지를 잘 꾸려주어 현대과학기술을 습득시키며 세계 기계제작공업 발전추세도 알려주어야 한다고 언급함.

□ **김정은, 오중흡7연대 칭호를 받은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비행훈련 현지지도(6.19 중통)**

o 동행 : 최룡해·윤동혁·홍영칠

o 주요 내용

- 김정은은 지휘소에 올라 비행훈련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훈련을 지도함.

- 비행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비행사들을 현대전에 대처할 수 있는 하늘의 결사대, 유능한 전투비행사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지시함.

- 군부대 비행사들이 전승 60돌 경축 열병비행준비도 잘할 것을 강조

□ **김정은, 1월18일기계종합공장 현지지도(6.19 중통)**

o 동행 : 최룡해·홍영칠·윤동현·한성호

o 주요 내용

- 김정은은 혁명사적교양실 건설을 2년 넘도록 끝내지 못한 것을 알고 이해할 수 없다고, 공장의 분위기가 다른 공장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언급함.

- 이 공장 당위원회에서는 당의 방침을 사상적으로 접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함.

- 도당위원회 일꾼들이 공장에 내려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지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실무화되고 경직된 사고방식·사업태도에 경종을 울린다고 언급함.

□ 김정은,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현지지도(6.20 중통)

o 동행 : 최룡해·박태성·김영남

o 주요 내용

- 김정은은 고압폴리에틸렌직장에 건설한 기능성 3겹 온실박막생산공정을 돌아봄.

- 기능성 3겹 온실박막을 처음 생산하는 것이니만큼 경험을 쌓고 노동자들의 기능 수준을 높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그 질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함.

- 남흥청년화학 연합기업소는 경제강국 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면서 과업들을 제시함.

□ 김정은, 안주시 송학협동농장 남새온실 시찰(6.20 중통)

o 동행 : 최룡해·박태성·김영남

o 주요 내용

- 안주시 송학협동농장에서는 부지면적 2,400여㎡에 달하는 남새온실을 건설하고 배추·쑥갓 등을 태양열을 이용하여 생산함으로써 식생활에 이바지하고 있음.

- 김정은은 남새온실을 곳곳에 건설하는 것은 계절성을 극복하고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공급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언급함.

- 중앙에서 도·시·군에 건설할 표준화된 온실설계를 내려보내며 도·시·군들간 경쟁을 조직해야 한다고 언급함.



北 국방위 대변인, 美北대화 제의 등 관련 중대담화 발표

개 요

o 北「국방委」대변인은 중대담화를 발표해, '북-미 당국간 고위급회담'을 통해 '現 한반도 긴장국면 해소문제 등을 협의'하자고 제안하였음.(6.16 중통)

주요내용

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중대입장을 밝힘.

o 한반도의 정세를 지속적으로 격화시켜온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임.

o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이고 결심임.

-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유훈이며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정책적과제임.

-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결코 북핵폐기만을 위한 비핵화가 아니며,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이자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킬 것을 목표로 내세움.

- 우리의 핵보유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자위적이며 전략적인 선택임.

-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의 당당한 지위는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가 실현되고 외부의 핵위협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유지될 것임.

o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해소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북미 당국 사이에 고위급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함.

- 북미 당국사이의 고위급회담에서는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문제,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, 미국이 내놓은 핵없는 세계건설 문제 등 쌍방이 원하는 문제를 폭넓게 협의할 수 있을 것임.

- 회담장소와 시일은 미국이 편리한대로 정하면 될 것임.

o 미국이 진정으로 핵없는 세계를 바라고 긴장완화를 원한다면 적극 호응해야 할 것임.

김계관, 북중 외교부문 전략대화 관련 방중

개 요

o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방중 및 외교부문 전략대화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음.(6.18~22 중통 등)

주요내용

o 6.18일 김계관(외무성 제1부상) 및 일행, 訪中(6.18 중통)

o 6.19일, 베이징에서 北 외무성과 中 외교부간 전략대화 실시

- 참석: 장예수이(中 외교부 상무부부장), 김계관, 지재룡(駐中 조선특명전권대사) 등

- 안건: 북중간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해서 및 상호 관심사 등

o 6.21일 김계관, 양제츠(국무위원) 및 왕이(외교부장)과 각각 면담(6.22 중통)

o 6.22일 김계관, 비행기로 귀국(6.22 중통)

주요인물동정

김정은(당 제1비서)

- 유평혁명사적지 현지지도(6.16,중통·중방)
- 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 현지지도(6.17,중통·중·평방)
- 6.18건설돌격대를 지원한 인민대학습당 편집원 등에게 감사 전달(6.18,중방)
-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비행훈련 지도(6.19,중통·중방)
- 1월18일기계종합공장 현지지도(6.19,중통·중방)
- 안주시(平南) 송학협동농장 남새온실 시찰 및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현지지도(6.20,중통·중·평방)
-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현지지도(6.22,중통)

강관일(미상)

- 김정은,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현지지도시 수행(6.22,중통)

강석주(내각 부총리)

- 6.18 김정일 黨사업 개시('64.6.19) 49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(6.18,중통·중방)

궁석웅(외무성 부상)

- 6.19 駐北 영국 대사 주최 自國 여왕(엘리자베스 2세) 생일 즈음 연회 참석(6.19,중통·중방)

김격식(총참모장)

- 6.18 김정일 黨사업 개시('64.6.19) 49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(6.18,중통·중방)

김계관(외무성 제1부상)

- 6.18 중국 방문차 평양 출발(6.18,중통·중방)
- 6.19 베이징에서 장예수이(외교부 상무부부장)과 '외교부문 전략대화'(6.19,중통·중방)

김기남(당 중앙위 비서)

- 6.18 김정일 黨사업 개시('64.6.19) 49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(6.18,중통·중방)

김병식(체육성 부상)

- 6.19 駐北 영국 대사 주최 自國 여왕(엘리자베스 2세) 생일 즈음 연회 참석(6.19,중통·중방)

김양건(당 중앙위 비서)

- 6.18 김정일 黨사업 개시('64.6.19) 49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(6.18,중통·중방)

김영남(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)

- 6.12 세이셸 국경절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(6.17,중통·중방)
- 6.18 김정일 黨사업 개시('64.6.19) 49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(6.18,중통·중방)
- 6.18 이란 대통령 당선자(로하니)에게 축전(6.18,중통·중방)

김영남(평남도당 비서)

- 김정은, 안주시(平南) 송학협동농장 남새온실 시찰 및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현지지도시 수행(6.20,중통·중·평방)

김원홍(국가안전보위부장)

- 6.18 김정일 黨사업 개시('64.6.19) 49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(6.18,중통·중방)

김진국(황남도 농촌경리위원장)

- 6.16 김정일의 계남목장 현지지도 10돌(2003.6.17) 기념보고회 참석(6.17,중방)

김택구(미상)

- 김정은,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현지지도시 수행(6.22,중통)

류영섭(자강도당위 책임비서)

- 김정은,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현지지도시 수행(6.22,중통)

리병철(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)

- 김정은,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비행훈련 현지지도시 영접(6.19,중통·중방)

리설주(김정은 부인)

- 김정은,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비행훈련 현지지도시 동행(6.19,중통·중방)

리용무(국방위 부위원장)

- 6.18 김정일 黨사업 개시('64.6.19) 49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(6.18,중통·중방)

리종무(체육상)

- 6.20 北 올림픽위 대표단 단장으로 스위스 일정 마치고 귀환(6.20,중통·중방)

문경덕(평양시당 책임비서)

- 6.15 평양기초식품공장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식 참석(6.16,중방)
- 6.18 김정일 黨사업 개시('64.6.19) 49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(6.18,중통·중방)

문재철(외무성 부상)

- 6.19 駐北 영국 대사 주최 自國 여왕(엘리자베스 2세) 생일 즈음 연회 참석(6.19,중통·중방)

박봉주(내각 총리)

- 6.18 김정일 黨사업 개시('64.6.19) 49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(6.18,중통·중방)

박영호(황남도당 책임비서)

- 6.16 김정일의 계남목장 현지지도 10돌(2003.6.17) 기념보고회 참석(6.17,중방)

박정천(미상)

- 김정은,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현지지도시 수행(6.22,중통)

박태성(당 중앙위 부부장)

- 김정은, 유평혁명사적지 현지지도시 수행(6.16,중통·중방)
- 김정은, 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 현지지도시 수행(6.17,중통·중·평방)
- 김정은, 안주시(平南) 송학협동농장 남새온실 시찰 및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현지지도시 수행(6.20,중통·중·평방)
- 김정은,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현지지도시 수행(6.22,중통)

손철주(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)

- 김정은, 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 현지지도시 수행(6.17,중통·중·평방)

안영기(인민무력부 대외사업국장)

- 6.18 인민군 대외사업일꾼대표단 단장으로 베트남 방문후 평양 도착(6.11,중통·중방)

양형섭(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)

- 6.18 김정일 黨사업 개시('64.6.19) 49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(6.18,중통·중방)

오극렬(국방위 부위원장)

- 6.18 김정일 黨사업 개시('64.6.19) 49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(6.18,중통·중방)

오룡철(무역성 부상)

- 6.19 駐北 영국 대사 주최 自國 여왕(엘리자베스 2세) 생일 즈음 연회 참석(6.19,중통·중방)

윤동현(인민무력부 부부장)

- 김정은, 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 현지지도시 수행(6.17,중통·중·평방)
- 김정은,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비행훈련 현지지도시 수행(6.19,중통·중방)

- 김정은, 1월18일기계종합공장도 현지지도시 수행(6.19,중통·중방)
- 김정은,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현지지도시 수행(6.22,중통)

장정남(인민무력부장)

- 6.18 김정일 黨사업 개시('64.6.19) 49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(6.18,중통·중방)

장철(국가과학원장)

- 6.20 국가과학원 잔디연구중심 준공식 참석(6.20,중통·중방)

전길수(철도상)

- 6.21 철도성 대표단장으로 '철도협조기구 제41차 장관회의' 참가 후 귀환(6.21,중통·평방)

최룡해(총정치국장)

- 김정은, 유평혁명사적지 현지지도시 수행(6.16,중통·중방)
- 김정은, 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 현지지도시 수행(6.17,중통·중·평방)
- 김정은,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비행훈련 현지지도시 수행(6.19,중통·중방)
- 김정은, 1월18일기계종합공장 현지지도시 수행(6.19,중통·중방)
- 김정은, 안주시(平南) 송학협동농장 남새온실 시찰 및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현지지도시 수행(6.20,중통·중·평방)
- 국가과학원 버섯연구소 현지 요해(6.19,중통·중방)
- 김정은,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현지지도시 수행(6.22,중통)

최태복(당 중앙위 비서)

- 6.18 김정일 黨사업 개시('64.6.19) 49돌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보고(6.18,중통·중방)
- 6.20 국가과학원 잔디연구중심 준공식 참석(6.20,중통·중방)

최휘(당 중앙위 제1부부장)

- 김정은, 유평혁명사적지 현지지도시 수행(6.16,중통·중방)
- 김정은, 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 현지지도시 수행(6.17,중통·중·평방)

한성호(미상)

- 김정은, 1월18일기계종합공장도 현지지도시 수행(6.19,중통·중방)

홍영칠(미상)

- 김정은, 유평혁명사적지 현지지도시 수행(6.16,중통·중방)
- 김정은, 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 현지지도시 수행(6.17,중통·중·평방)
- 김정은,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비행훈련 현지지도시 수행(6.19,중통·중방)
- 김정은, 1월18일기계종합공장도 현지지도시 수행(6.19,중통·중방)
- 김정은,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현지지도시 수행(6.22,중통)

황병서(당중앙위 부부장)

- 김정은,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현지지도시 수행(6.22,중통)

주 간 일 지

대남동향

6.15(토)

- 【6.15공동선언실천 북측委 대변인 성명(6.15)】 '6.15민족공동행사가 南 당국의 방해책동으로 성사되지 못하였다'며 '이것은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공공연한부정이며 용납 못할 도전'이라고 주장(중통·중방)

  - 온 겨레는 6.15공동행사를 파탄시킨 南 당국의 反민족적 범죄를 반드시 결산할 것임.

- 【중통 논평】 남북당국회담 우리측 수석대표(통일부 장관 → 통일부 차관) 관련 '온 겨레를 우롱하고 기만한 용납 못할 불망나니 행위'라고 비난 및 회담 무산에 대해 '南 당국의 도발적 망동은 온 겨레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'이라고 주장(중통/단순한 무지무식의 발로이겠는가)

  * 남북당국회담 무산 관련 '南 당국의 오만무례하고 고의적인 대화 방해책동 때문'이라고 책임전가하며 '남북대화 기회를 망쳐놓은 南 당국의 反통일망동을 반드시 결산할 것'이라고 위협(중통·노동신문/대화를 파탄시킨 목적은 무엇인가)

6.16(일)

- 우리 당국자들의 '남북 당국회담' 무산 관련 발언(격에 맞는 대화 등)에 대해 "대화파괴자들의 파렴치한 생억지"라고 책임 전가 비난 공세(중통·노동신문·평방/터무니없는 논거, 삐뚤어진 시각)

  * "비열한 현실기만, 여론오도 술책, 파렴치한 추태" 등으로도 우리 당국자들 발언 매도 및 책임 전가 지속(평방/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행위)

- 南 국방부 장관의 '對美日 국방장관 회담'(6.1, 싱가폴) 등(6.4-5, 「합참」 의장 訪中·6.3, 외교부의 한-중 고위급 전략대화) 외교강화에 대해 "우리(北)와 다른 나라들 사이에 쐐기를 쳐보려는 심보, 동족대결 책동"으로 왜곡 시비(중통·민주조선)

- 국군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6.14 '서북도서지역의 적 도발에 대비한 증원 및 방어훈련' 실시, 연합뉴스 인용 비난(중통·중방)

6.17(월)

- 北赤중앙위 대변인, 6.17 라오스에서의 탈북자 국내 입국 관련 '청와대와 현지 대사관까지 가담하여 감행된 이번 납치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'이라며 '유인납치와 인신매매의 주범은 청와대'라고 비난(중통·중방·평방)

6.18(화)

- 北, '조국통일을 위한 선결과제는 민족의 단합'이라고 강조하며 '南과 北의 각 정당·단체들은 주의주장과 당리당략을 전면에 내세우지 말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해 대범하게 손을 잡아야 한다'고 호소(중통·중방·노동신문/민족단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)



- 새누리당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'원점 타격' 발언에 대해 '우리(北) 군대와 인민을 극도로 자극하는 고의적인 도발적 폭언이며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'라고 비난 및 사죄 요구(중통·민주조선/남조선 새누리당의 원점타격 폭언을 규탄)
- 우리 해군2함대의 '제1연평해전 전승 기념식(6.14)' 및 서북도서사령부의 '방어훈련(6.14)' 관련 "평화통일 지향과 열망에 대한 악랄한 도전"이며 '공공연한 군사적 도발'이라고 비난(평방/더욱 노골화되는 북침 전쟁 도발기도)

6.19(수)

- 北 인민보안부 "특별담화(6.19)", 우리 정부의 탈북자들을 내세워 '北 존엄·체제 중상모독' 왜곡 주장 및 '탈북자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단행 결심' 위협(중방·평방·중통)
  - 우리(北)에 대한 모략선전과 비난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 현 당국자들, 악질적인 보수언론 매체들도 무자비한 정의의 세례를 받게 될 것임.
  - ※ 탈북자 매체'뉴 포커스'는 지난 18일"김정은이 자신의 생일인 1월8일 당 간부들에게 히틀러 자서전 '나의 투쟁'을 선물 했다"고 보도한 바 있음.
  - * 【중통 논평】 美 '워싱턴포스트'의 '뉴 포커스' 인용 보도에 대해서도 "날조해 내는 모략보도를 제노라 하는 언론이 그대로 받아문 것은 자기망신"이라고 비난 및 "우리 천만군민의 승리적 전진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다"고 주장(중통)
- 국방부 장관의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(6.7, NLL 대응태세 등)에 대해 '남북 당국회담을 제의한 다음날 화약내 풍기는 모의판'이라며 '남북 당국회담' 무산 책임 지속 전가(평방/대화 파괴자들의 호전적 광기)

6.20(목)

- 【중통 논평】 대통령께서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(6.17)시 '한국전에 대한 청소년들의 잘못된 역사인식(약 70%가 북침이라고)'발언 관련 '미국의 무력침공을 합리화하려는 또 하나의 민족반역행위', '외세의존책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책동'이라며 '북침전쟁이었다'고 왜곡 주장(중통/외세의 침략전쟁을 합리화하려는 역적행위)
- 라오스에서 탈북자들 국내입국 관련 '반공화국인권유린책동으로서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전면부정, 전면도전'이라고 왜곡 주장 및 '반공화국 대결을 노린 우리(北) 주민들에 대한 강제유인납치 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'고 지속 주장(중통·민주조선)
- 새누리당의 '北인권법 제정'움직임 관련 '공화국의 체제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적대감의 발로로서 북남관계 개선을 반대하는 처사, 고의적 대화파괴 책동'이라고 비난하며 '인권문제란 존재하지도 않는다'고 주장(중방/인권모략 소동은 대결시대의 잔재)

6.21(금)

- 【중통 논평】 북송 탈북청소년 및 탈북자 국내 입국 관련 '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짜고 감행한 특대형 인권유린범죄'라며 '유인납치행위에 광분할수록 추악한 정체만 세계면전에 드러나게 될 것'이라고 왜곡 비난(중통/도대체 누가 인권을 논해야 하는가)
- 【중통 논평】 '어나니머스'가 6월25일 北 내부 인터넷망 해킹 예고 관련 '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행위'라고 비난 및 '미국과 南정보기관의 배후조종을 받는 국제테러집단'이라고 주장(중통/달을 보고 짖어대는 미친개들의 망상)

● 韓美 '연합전구사령부' 창설에 대해 "새로운 전쟁기구"이며 '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조선민족과 국제사회계를 우롱, 모독하는 교활한 술책'이라고 비난(중통·민주조선/미국과 남조선의 새로운 전쟁기구 조작책동 폭로)

내부동향

6.15(토)

● 김정은 黨 제1비서, 대관유리공장 현지지도(중통·중방·평방)

- 최룡해, 최휘, 박태성, 홍영철, 리만건(평안북도위 책임비서) 등 동행

● 北 레슬링선수들, 아시아청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획득(중통·중방·평방)

● '6.15공동선언' 발표 13돌 관련 '남북공동선언은 南-北이 화해와 협력, 우리민족끼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역사적 사변'이며 '김정일의 통일애국 신념과 세련된 영도의 고귀한 결실'이라고 강조(중통·중방·노동신문/6.15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의 앞길을 힘차게 열어나가자)

* '6.15공동선언은 김정일의 조국통일 위업을 위한 노고의 결실이며 위대한 업적은 민족사에 영원히 빛날 것'이라고 주장(중통/민족사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업적)

● 北 강원도 군인들과 각 단위 돌격대원들, 세포등판 개간 성과(매일 계획의 120% 이상 수행 등) 선전(중통)

* 군인건설자들, 문수물놀이장·인민군열사묘 등 건설 성과 선전(평방)

* 평양철도국 등 화물수송 성과 및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철강재 증산 투쟁(중방)

* 혜산市 연봉지구에 남새온실 새로 건설(평방)

…… 【주요인물 동정】 ……

□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(단장 : 조명호 교토조선중고급학교 교장), 6.15 평양 도착(중통·중방)

6.16(일)

● 김정은 黨 제1비서, 유평혁명사적지 현지지도(중통·중방)

- 최룡해, 최휘, 박태성, 홍영칠 동행

● 최고인민회의 정령, 6.15 문경덕(黨 중앙위 비서 겸 평양시黨 책임비서) 참가下 평양기초식품공장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식 진행(중방)

● 평양국제축구학교 등, 6.15 '김정은 현지말씀' 관철 궐기모임 진행(중방)

● 평안북도·자강도·황해북도·함경남북도·양강도·남포시, 6.15~16 '김정은 호소문(6.4, 마식령속도창조) 과업관철' 세포등판개간전투원들 '편지' 호응 군중대회 각각 진행(중통)

● 「전승절(7.27, 정전협정)」 60돌 즈음 인민군들의 전선지구혁명사적지 답사행군(6.10, 351고지→ 6.12, 금강군 내금강리→ 6.14, 순갑혁명사적자→6.15, 지혜산혁명사적자→ 6.16, 1211 고지) 진행(중통)

● 각급 「직맹」 조직들의 1/4분기 "농업전선 지원(분토 634만여 톤, 소농기구 24정·89만 여점)" 및 "농기계 수리지원(전국 1,100여개 수리지원조 조직 및 900여개 농장들에 파견)" 성과 보도(중방)



● '보천보횃불상 체육경기대회' 축구 1급 2차 연맹전 일정(6.15부터 김일성경기장 등) 소개(중방)

6.17(월)

● 김정은 黨 제1비서, 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 현지지도(중통·중방·평방)

- 최룡해·최휘·박태성·홍영칠·손철주·윤동현 동행

● '김정은의 공격정신으로 살며 투쟁해 나갈 때 뚫지 못할 난관과 점령 못할 요새란 없다'며 '공화국창건 65돌과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돌을 맞는 올해에 강성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갈 것'을 호소(중통·노동신문/위대한 선군영장의 공격정신으로 대고조진군속도를 최대로 높이자)

● 제2차 관광선 황성호에 의한 '나선-금강산국제관광단', 6.16~17 금강산 관광(중통·중방)

● 김정일의 계남목장 현지지도 10돌(2003.6.17) 기념보고회, 6.16 박용호(황남도 당책), 김진국(도 농촌경리위원장) 등 참가下 진행(중방)

● 국가우표발행국, 백두산 형상 우표(묶음전지 1종)와 꿀벌을 반영한 우표(개별우표 3종) 발행(중통)

…… 【주요인물 동정】 ……

□ 김영남, 6.12 세이쉘 국경절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(중통·중방)

□ 쿠바 내각수상, 6.6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생일축전에 대한 답전(중통)

6.18(화)

● 김정은 黨 제1비서, 6.18건설돌격대를 지원한 인민대학습당 편집원 등에게 감사 전달(중방)

● 김정일 黨사업 개시('64.6.19) 49돌 기념 중앙보고대회, 6.18 김영남·박봉주·김격식·장정남·김기남·최태복(보고)·양형섭·리용무·강석주·오극렬·김원홍·김양건·문경덕(사회) 등 참가下 평양 4.25문화회관에서 진행(중방·중통)

● 평안남도·황해남도·강원도·나선시, 6.17~18 '김정은 호소문(6.4, 마식령속도 창조) 과업관철' 및 세포등판 개간 전투원들 '편지' 호응 군중대회 진행(중통)

● 전국「직맹」초급선전 일꾼들, 6.12~18 김정일 黨사업 개시 49돌 즈음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·혁명사적지들 답사(중통·중방)

* 외국선박선원들 경축집회, 6.18 청진항에서 진행 및 청진시 김일성 父子 태양상모자이크 벽화 참배(중통·평방)

● 대동강건재공장의 건재품들(차열복합판·수지창·발포수지 등) 소개(중통)

● 남포수출입품검사검역소, 조류독감 검사 강화(평방)

* 남포시, 와우도구역에 체육시설(배구장·농구장·실내오락장 등) 건설(평방)

…… 【주요인물 동정】 ……

□ 김계관(외무성 제1부상)과 일행, 6.18 중국 방문차 평양 출발(중통·중방)

□ 김영남, 6.18 이란 대통령 당선자(로하니)에게 축전(중통·중방)

□ 인민군 대외사업일꾼단(단장 : 안영기 소장), 6.18 베트남 방문 후 평양 도착(중통)

□ 재일동포조국방문단(단장 : 조천기「총련」중앙상임위 부국장), 6.18 평양 출발(중통)

6.19(수)

- 김정은 黨 제1비서, 리설주와 함께 오중흡7연대 칭호 받은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비행훈련 현지지도(중통·중방)
  - 최룡해, 윤동현, 홍영칠 동행 및 리병철(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) 현지영접
  - * 김정은, 1월18일기계종합공장도 현지지도(중통·중방)
  - 최룡해, 홍영칠, 윤동현, 한성호 동행
- 김정일 '당 사업 시작(6.19)' 49돌 즈음 '당건설 업적' 칭송 및 경축행사
  - * '김정일의 당건설 업적 및 김정은의 계승발전' 찬양과 全民은 '김정은 호소(*마식령속도)를 높이 받들고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할 것' 독려(중방·노동신문·중통/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가자)
  - * '새로운 전환의 이정표가 마련된 역사의 날' 題下 등으로도 '김정일의 노동당을 김일성당·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 업적' 등 찬양 일색(중통)
  - * 만수대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 '영원히 한길을 가리라', 6.19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 및 김영남·박봉주 및 당과 국가 책임일꾼 등 관람(중통·중방)
  - *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, 6.19 당창건기념탑광장에서 진행(중통·중방)
  - * 청년학생들 무도회, 6.19 평양시내(당창건기념탑 등)와 각지에서 진행(중통·중방)
  - *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 종합공연도 6.19 진행(중통·중방)
- 김정일 저작 발표(6.19) 18돌 즈음 全民이 "김일성-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는 길"이라고 강조(중통·노동신문·중방/사상은 사회주의의 생명이다·사상의 위력으로 주체의 사회주의를 빛내이시어)
  - ※ 김정일 저작"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"
- '미국을 비롯한 反北세력들의 핵전쟁도발 책동이 끝장나지 않는 한 새로운 병진노선 절대불변 및 핵억제력 포기 절대불가' 지속 강조(중통·노동신문/전쟁방지와 평화보장의 위력한 보검)
- 최룡해(軍 총정치국장) 국가과학원 버섯연구소 현지 요해(중방·중통)
- 최고인민회의 상임委 정령 제3223호, "모범적인 단위들"에 3중3대혁명붉은기(송림항부두대)"와 2중3대혁명붉은기(평양가스충전사업소 등 14개 단위) 및 3대혁명붉은기(강동군 고비협동농장 등 55개 단위) 수여(중방)
- '김정은 호소문(6.4, 마식령속도) 과업관철' 시·군 군중대회 진행(중통)
- 北 체육선수들의 지난 5개월간 탁구·마라톤·유도·레스링 등 종목들에서 '세계선수권·아시아선수권 보유 남녀 선수들 배출 및 20여개 금메달과 수십개의 메달·우승컵·기술상 등 입상 성과' 선전(중통)
- 선전화들, "당의 병진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자!·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자!·원쑤들에게 무자비한 타격을!" 등 창작(중통)
- 駐北 영국 대사, 6.19 自國 여왕(엘리자베스 2세) 생일 즈음 궁석웅·오룡철·김병식(외무성·무역성·체육성 부상) 및 문재철(외교단사업총국 부총국장) 등 초대下 연회 개최(중통·중방)

6.20(목)

- 김정은 黨 제1비서, 안주시(平南) 송학협동농장 남새온실 시찰 및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현지지도(중통·중방·평방)
  - 최룡해·박태성·김영남(평안남도黨 비서) 동행
- 김정일 黨사업 개시 49돌 즈음 '업적을 칭송'하며 '김정은에 의하여 조선노동당은 어머니 당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당건설 위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활력있게 진행되고 있다'고 선전(중통)
- 北 인민무력부, 6.20 반미공동투쟁월간(6.25~27) 즈음 駐北 무관단 위한 영화감상회 진행(중통·중방)
  * 농업근로자들과 여맹원들의 복수결의모임, 6.20 6.25미제반대투쟁의 날 즈음 황해남도 신천박물관과 남포시 강서구역 수산리계급교양관에서 진행(중통)
- 국가과학원 잔디연구중심 준공식, 6.20 최태복·장철(국가과학원장, 준공사) 등 참가下 진행(중통·중방)
- 라오스에서 북송된 탈북청소년들, 6.20 고려동포회관에서 좌담회 진행(중통)
  ※ 로정영(14세), 류철룡·장국화·리광혁(15세), 정광영(16세), 박광혁(17세), 류광혁(18세), 문철·백영원(19세) 참가
  - 중국 단동에 있는 南 장하진 목사의 집에서 기거하다 중국 국경을 넘었으며, 라오스 정부가 南 인신매매자들에게 걸려들어 유괴되어 가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평양으로 돌아올 수 있게 적극 방조해 주었다고 주장
- 駐北 러시아 대사와 성원들, 6.20 남포시 천리마구역 고창협동농장 친선노동(중통·중방)
  * 駐北 말레이시아 대사와 성원들, 강동군 봉화협동농장 목화밭 김매기 진행(중통·중방)
- 청진시 나남구역 4쌍둥이(2012.12월 출생)들, '김정은 黨 제1비서의 배려에 힘입어 6.19(김정일 당사업 개시일) 건강하게 퇴원' 선전(중방)

…… 【주요인물 동정】 ……

□ 北올림픽위원회 대표단(단장 : 리종무 체육상), 6.20 스위스 일정 마치고 귀환(중통·중방)

□ 아시아 청년 레슬링선수권 대회 참가 北 선수들, 6.20 귀환(중통·중방)

□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, 6.20 평양 출발(중통·중방)

6.21(금)

- '김정일은 동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천품으로 지닌 위대한 영도자'라고 칭송하며 '영도자가 있었기에 군대와 인민은 강성국가의 찬란한 미래를 향해 질풍같이 달려 나갈 수 있게 되었다'고 강조(중통/김정일 동지의 당령도사는 동지애의 역사)
- '주체성과 민족성 고수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근본담보'이며 "조선인민의 영원한 넋이고 숨결"이라고 강조(중통·노동신문/주체성과 민족성 고수는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근본원칙)
- 각지 공장·기업소·협동농장·기관들, '김정은 호소문 과업관철' 및 세포등판개간 전투원들 '편지' 호응 궐기모임 각지에서 진행(중통)
- 제16차 정일봉상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, 6.21 태권도전당에서 폐막(중통)
- 北 강원도의 '고산과수농장 능력확장 공사장' 혁신 성과(500여세대 살림집과 10여만대의 콘크리트 지지대 세우기 등) 선전(중통)

* 황해남도 협동농장들, 장마철 피해방지 대책 수립(중방)

- 駐北 무관단, 6.21 '反美공동투쟁월간(6.25~7.27)' 즈음 판문점 참관(중통)
- 재일조선청년학생 축구대표단(단장 : 리강홍 재일본조선인축구협회 이사장), 6.21 평양 도착 및 만수대 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 참배(중통·중방)

…… 【주요인물 동정】 ……

□ 철도성 대표단(단장 : 전길수 철도상), 6.21 '철도협조기구 제41차 장관회의' 참가 후 평양 도착(중통·평방)

대외동향

6.15(토)

- 김정은 黨 제1비서, 6.15 중국 '시진핑' 주석 60회 생일 관련 축전(중방·평방)
- 최근 미국에서 미술수집가에 의해 조선왕조시기 옥새(1651년 제작) 발견 관련 '민족의 문화재보를 美 침략군이 약탈해갔다'며 '우리(北) 인민에게 정신적· 물질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·배상해야 한다'고 주장(평방/철저히 결산해야 할 문화재 강탈행위)

6.16(일)

- 北 「국방委」 대변인 중대담화(6.16), '북-미 당국간 고위급회담'을 통해 '現 한반도 긴장국면 해소문제 등 협의' 전격 제안(중통·중방·평방)
  - 고위급회담에서는 군사적 긴장상태의 완화문제,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, 미국이 내놓은 '핵없는 세계건설' 문제를 포함하여 쌍방이 원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폭넓고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임.
  -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미국본토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데 진실로 관심이 있다면 전제조건을 내세운 대화와 접촉에 대하여 말하지 말아야 함.
  - 회담 장소와 시일은 미국이 편리한대로 정하면 될 것임.
- 일본의 향후 5년간 對아프리카에 수백억 달러 지원계획(제5차 아프리카개발회의, 6.1~3 요코하마) 이면에는 '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하려는 음흉한 기도'라며 '先 과거청산' 촉구(중방·노동신문/제 잇속을 차리기 위한 금전외교)

6.17(월)

- 日 유신회 중참량원의원모임 회장의 종군위안부 망언('자기 자식과 이웃집 딸이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가만있었단 말인가', '조선 사람은 그렇게까지 비겁하단 말인가') 등 관련 '성노예범죄를 왜곡하기 위한 日 정계인물들의 망동이 졸렬성의 극치에 이르고 있다'며 '천하 비겁하고 졸렬한 자들의 망동'이라고 비난(중통·노동신문·평방/조선민족을 우롱하는 비겁쟁이의 망동)



6.18(화)

- 美 국가안전보장국(NSA)의 인터넷 해킹 및 개인정보 수집 관련 '미국이 세계를 감시망에 넣고 인류를 대상으로 정탐행위를 감행한 인권유린의 왕초'라고 비난(중통·민주조선/미국의 인권 관련 추문행위 단죄)
- 일본의 우경화(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, 헌법 9조 개정 추진 등) 움직임 관련 '역사부정 의식이 골수에까지 꽉 들어차 있다'며 '군국화를 실현하려는 독사의 몸부림'이라고 비난(평방/일본의 우경화에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)

6.19(수)

- 北 - 中, 6.19 베이징에서 '외교부문 전략대화' 진행 및 '친선협조관계 더욱 발전 및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 의견교환' 보도(중통·중방)

  - 北 : 김계관(외무성 제1부상) - 中 : '장업수'(張業遂, 외교부 상무부 부장) 등 참가

  * '시진핑(習近平)' 中 국가주석, 6.18 '김정은의 시진핑 60회 생일 축전(6.15)'에 답전(중통·중방)

- 유엔의 일본 정부에 '하시모토'(유신회 공동대표) 발언(일본군 성노예 필요) '시정 권고' 강조 및 "역사 왜곡과 미화분식은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이며, 일본의 우익화·반동화의 길로 줄달음" 우려(중통·민주조선)

6.20(목)

- 美국가안전보장국이 '자국민들의 전화 및 인터넷사용정보를 수집한 것' 관련 '인민대중에 대한 인권유린을 특권지배층의 이익과 침략야망 실현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반동국가, 인류의 원쑤'라고 비난(중통/인권유린을 공공연히 정당화하는 파렴치한 미국)

6.21(금)

- 美 '23화학대대'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 '조선민족에게 핵참화와 생화학전쟁의 재난까지 들씌우려는 극악무도한 범죄적 기도의 발로'라고 비난(중통·노동신문/생화학부대는 무엇을 노리는가)
- 최근 미군이 그루지야의 한 기지에서 '세균실험' 진행 관련 '미국은 세균무기를 개발하고 그것을 실전에 써먹는 인간살륙의 원흉, 세계 최악의 범죄국가'라고 비난(중통·평방·노동신문/인권유린왕초의 정체)



금주(6.15~6.21)의 略史

- 06.15 : 제4차 비동맹국 공보상회의 개막('93년, 평양)
- 06.15 : 남북해군, 서해 해상 무력충돌 발생('99년)
- 06.15 : 615남북공동선언 발표(2000년, 평양)
  ※ 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 서명
- 06.16 : 의학과학원 개원('58년)
- 06.16 :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방북('98년, 판문점 경유)
  - 한우 500두 대북지원
- 06.17 : 한글 로마자표기안 남북합의('92년, 파리)
- 06.17 : 김일성, '카터' 전미국 대통령과 회담개최('94년, 평양)
  - 남북정상회담 개최용의 표명
- 06.19 : 김정일, 노동당 중앙위 사업 시작('64년)
- 06.20 : 포병절('82.10.28.)
- 06.21 : 경제수역 200해리 선포 정령 발표('77년)
- 06.21 : 대북 쌀제공문제 관련 남북당국회담 개최('95.6.17.~21, 북경)
  - 대북 15만톤 쌀 제공 합의